

# 전남도, 240억 투입... 동남아·중동 e-모빌리티 시장 선점

핵심부품 국산화에 90억 지원  
수요연계형 부품 개발에 150억  
필리핀 등서 '모빌리티 데이' 준비



영광 대마산단 전경.

/전남도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이(e)-모빌리티가 친환경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누빌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빠르게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이-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국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구축(90억 원), 동남아 시장에 맞춘 우측 핸들(RHD) 차량과 교환형 배터리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초소형 전기차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150억 원) 등이다.

해외바이어 상담과 해외박람회 참

가 지원 등 동남아시아 개척을 위한 '전남 모빌리티 데이'도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등 이-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첫 '전남 모빌리티 데이'는 에이치비, 대풍, 세보 등 전남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필리핀 대기업 LCS 그룹, 일로코스 주 등을 방문

해 수출상담회와 연계협력 강화 등 글로벌 이-모빌리티 중심지로의 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대풍, 에이치비가 필리핀 앵커 기업과 필리핀 진출을 위한 조립공장 설립·생산·판매를 위한 이-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세보모빌리티도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업들의 노력이 발맞춰 완제품 수출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도내 기업이 설립한 동남아 조립공장에서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장·성형·용접 등 생산장비를 갖춘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규제·실증·인증·허가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이-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를 유치해 도내 기업의 해외 맞춤형 인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라이브 테스트베드와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는 1월 30일 지역 내 종합병원과 함께 지역의료 활성화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 포항시-종합병원 지역의료 활성화 업무협약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인 포항시가 지난 30일 지역 종합병원과 함께 특화단지 유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최순호 포항성모병원장, 권흥대 에스포항병원장, 구자현 좋은선린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가 힘을 쏟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이상호 기자 leesh0412@

# 경남도, 설 연휴 4일간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마창대교 등서 총 62만대 예상  
이용자 혜택통행료 23억 추정



마창대교.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

료 면제 시행 내용을 도청 및 민간사업자 누리집,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설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3만대 등 총 6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는 약 2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2000만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거가

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과 7월부터 시행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에 이어 올해 2월 1일부터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분의 안전운전을 기원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함평군 도시숲·가로숲길 정비 추진

전남 함평군이 함평군민의 산림복지증진을 위해 2024년 생활환경숲 등 도시숲, 가로숲길 조성 및 등산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 32억여 원을 투입해 대동 향교숲 인근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4개소와 기산에서 곤봉산에 이르는 테마숲길 및 가로숲길 28km를 조성하고, 현화양근린공원을 25년부터 지방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영주시, 휴일 어린이집 등 아동정책 확대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g7677@

## 사천시 "문화관광·역사탐방 하세요"

오늘부터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행

경남 사천시는 '사천사랑 시티투어'를 2월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사천시 방문객 및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4개 테마코스(문화관광, 역사탐방, 항공·체험관광, 달빛관광)와 체류형 코스(1박2일)로 운행된다.

올해는 우주항공산업체 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 기획전시 및 산업현장(KAI, KAEMS 등)을 연계한 항공·체험관광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층 버스를 투입해 시티투어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맛깔나는 해설도 곁들일 예정이다.

'사천사랑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천시의버스터미널과 삼천포시의버스터미널, 진주역에서 출발하며 5명 이상 사전 예약 시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천의 관광지를 편안하게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관광과 항공산업관광을 연계하는 숙박, 먹거리, 교통인프라 등을 구축해 항공관광 도시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 영덕군 법률·건축 등 무료 민원상담

영덕군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도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 건축, 세무, 지적 4개 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영덕군은 지난 2020년 법률과 건축, 지적 분야를 시작으로 관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관을 통해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법률 조언을 제공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세무 분야를 추가했고, 올해는 재무과의 마을 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국제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 세무 분야 인력풀을 더욱 보강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헝타 청산 명령에 中 부동산 해법은... '과감한 조치' 내놓을까 /사진 뉴시스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 확산...美, 관련 대책 논의 중

▲IMF "한국 가계부채 점진적 줄여야... 이자 부담 불거질 수도"  
▲삼엄한 경비에 적막감만... '조선인 추도비' 철거로 폐쇄된 दि공원



▲우크라이나 정보수장 "푸틴, 北 방문해 무기 공급 협상할 것"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유엔 직원 하마스 공격 연루' 책임 유엔총장 퇴진 요구